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故 이예람 중사 사망부터 특검까지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음 8월 19일) 제30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성공신화 함께 만들자"

김관영 도지사, 민선8기 첫 직원 소통의 날 행사

"실패 두려워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주길 바라"

"전북의 성공신화 함께 만들어가자"

민선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가 취임 후 첫 청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13일 '9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3분기 혁신도정상 시상, 민선 8기 도정운영방향 특강을 직접 진행하며 민선 8기 들어 현안업무 추진에 성과가 탁월한 부서를 격려하고 도민을 위한 청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진행한 특강에서 민선8기 도정 철학, 도정운영 원칙, 도정비전 및 도정 5대 목표를 공유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청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익산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확정 등 대규모 국가사업 선정을 계기로, 청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식 2달 반 가량이 지났는데, 곳곳에서 조그만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성공 스토리가 쌓이면 전북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들과 의미있는 첫번째 소통의 장을 마치며 김관영 도지사는 "새로운 전북의 꿈을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할 것"이라며, "전북의 대전환, 전북의 성공신화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청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부터 새로 시작한 '소통의 날'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하는 민선 8기를 맞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변화와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고 도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을 담은 명칭이다.

도는 앞으로 매월 1회 행사를 개최해 도정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문가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작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작일인 13일 전북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처에서 지원자들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전북도 문화유산 1000건 시대 개막

7월 29일 기준 1009건 등록

지난달부터 전주KBS와 함께

주1회 · 1건 문화유산 소개

홍보매체 활용 문화재 14개

종목별 전문가 칼럼 연재 등

도,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국가 및 전북도에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이 1000건을 돌파했다. 이에 전북도는 우수한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전북도민과의 의의 공유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기준,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은 총 1,009건이다. 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기부터 지정을 추진했으며, 2021년에는 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하는 등 현재 기준 국가지정 320건, 도지정 689건이다.

이에 도는 문화유산 의의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북 문화유산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전주 KBS와 함께 주 1회, 1건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뉴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전북 홍보매체를 활용해 문화재 14개 종목별 전문가 칼럼을 연재하고 내년에는 전북 문화유산 국보·보물을 중심으로 기획 특별전을 개최해 전북 유산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대유산, 종교유산, 근현대유산, 세계유산 등 분야별 주제를 선정해 전북문화유산의 현황과 미래방향을 점검하는 도민 토론회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문화유산의 창의적 가치 활용과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도 꾀한다.

국보 미륵사지 석탑을 모티브로 케익을 만들고, 보물 완주 청동검 거푸집에 완주 곶감을 첨가한 청동검빵을 개발하고, 보물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 형태의 전동 킥보드 제작 등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이 예·가능인의 무형적 가치에 신기술을 적용해 MZ세대에게도 공감과 창조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문화재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해 전라북도는 유구한 역사적 전통에 걸맞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조명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이 전라도 정명(定名 1018년) 1000년을 이끌었던 수부(首府)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전북 문화유산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와 개발이 더딘 상황이 문화유산의 보존 환경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미래의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과거 국가중심, 문화재청 주도의 정책과 방향은 이제 지자체 및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유산이 세계적인 유산이다'라는 가치 아래 우리 도민과 함께 온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가치 조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수한 도 문화유산과장은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켜켜이 묻어있는 전북 유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후백제 왕도, 조선왕조의 본향, 동학농민혁명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자원화·산업화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문화유산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해외 제조 어린이 제품 안정성 문제 '도마위'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 받는 제품 671건

상당수 제품이 구매대행 통해 국내서 판매

해외에서 만들어진 어린이 제품의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로부터 안정성 불합격으로 리콜 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이 1,096개에 달했으며, 675건(약 61%)가 어린이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아 발육기, 어린이 완구,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옷 등이다.

리콜은 헝가리 205개, 폴란드 104개, 리투아니아 85개, 체코 66개 등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외국 정부의 리콜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의 분석 결과 최근 2년간 리콜 명령으로 인해 산업부가 구매대행 금지 조치 내린 제품 68건 중 어린이 시계, 역류방지 쿠션, 딸랑이 장난감 등이 각종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정부 조치를 어기고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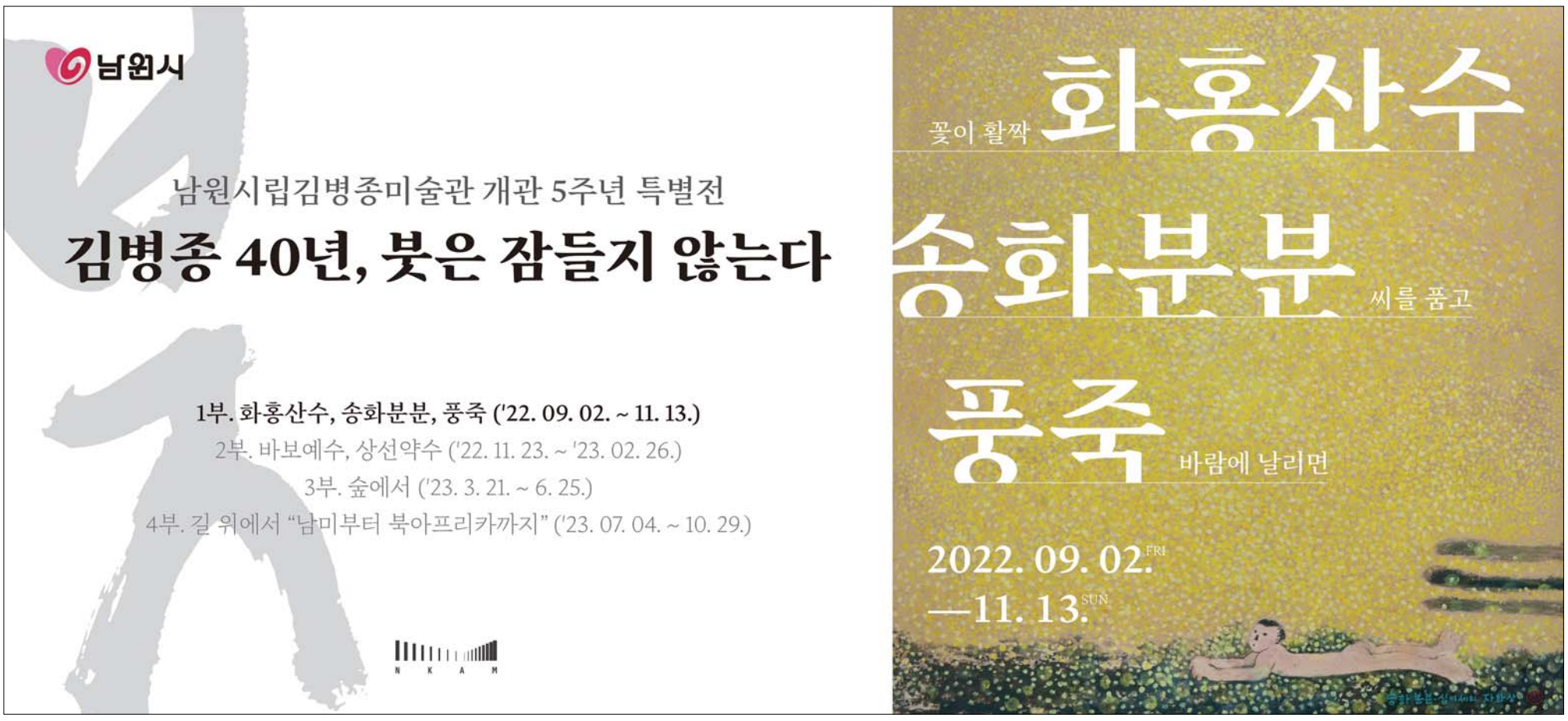
신 의원은 "현재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하다"며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추진… 생활 미세먼지 저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엔진을 통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가스열펌프를 구동할 경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관리하게 된다.

전북도에서는 도내 민간시설에 보급된 가스열펌프 569기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2년간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주요 12종에 해당하는 130여 개에 대하여 저감장치 설치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